

테마칼럼

광안과 민생

문화의 양기

디자인 세상

파라라 평남

‘키치’가 난무하는 사회



이난경

가로등마다 붙은 조잡한 장식물들 미란 해치는 벽화들...

지자체 홍보도 좋지만 싸구려 환경에 둘러싸인 예술의 현실 안타까워

“키치는 말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열의 아홉은 잘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잡동사니’, ‘천박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키치(kitsch)’는 원래 ‘속악한 것, 가짜 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이비’를 뜻하는 미술 용어다.

19세기 말 급속히 산업화된 유럽은 대중문화의 파급 속도가 빨라, 종산층도 그림과 같은 예술품을 관심을 가지고 사들이려는 욕구가 강해졌다.

그러던 것이 현대에 이르면서 고급문화나 고급예술과는 별개로 대중 속에 뿌리박은 하나의

예술 장르로까지 개념이 확대되었다. 근래에는 통속 취미에 영합하는 저속한 미술품, 일상적인 예술, 대중 패션 등을 의미하는 폭넓은 용어로 쓰이고 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쉽게 말해 이발소 그림을 생각하면 된다. 지금은 옛 모습의 이발소가 없어지고 이발소 그림도 예전만큼 보이지는 않지만 유럽(?)농가와 물레방아, 호수나 숲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그림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키치’를 자신의 작품으로 활용하는 작가도 있다. 내시랭 같은 경우는 자신을 성 삼룡화하고 만화, 광고사진, 캐리커 등을 섞어 잡탕스러운 작품을 만들어 낸다.

며칠 전 여수에 일이 있어 가게 되었다. 1년 반 만에 찾은 여수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알리는 현수막과 사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

다. 여수 진입로 입구 육교에 거북선을 그려 넣은 홍보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 여수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유명하니까.’라고 생각하며 시내로 들어서니 가로등의 평가가 눈에 걸렸다.

그것은 임진왜란에서 한국을 지켜낸 위대하고 위풍당당한 거북선이 아니었다. 조잡하고 초라한 장난감 같은 모습으로 애저름 놓여 있는 거북선을 보니 마음이 착잡해졌다.

사실 이것은 비단 여수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로등마다 붙은 지지체의 조잡한 캐리커 장식, 놀이동산에서나 볼직한 조악한 환경조형물, 미관을 해치는 벽화, 과다한 장식의 다리, 눈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키치’들.

이러한 것들은 예술을 보는 안목이 없는 공무원과 제조업자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앞으로 계속 이런 ‘키치’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설치된다면 우리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천박한 싸구려 환경에 둘러싸여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여수엑스포 민자 유인대책 서둘러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민자유치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부대시설 확충에 민자유치가 필수적이지만 국내외 기업들이 수익성 등을 들어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박람회 사업비 가운데 민자유치 비중은 총 투자액 1조6천694억원의 30%인 4천750억원에 이른다. 아쿠아리움과 숙박시설, 기업관, 유비쿼터스 시스템, 마린나, 해상공연장 등이 주요 대상이다.

문제는 투자 유치다.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민자유치 시설별로 투자 의향이 있는 국내외 기업과의 면담 및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기업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박람회는 4년도 채 남지 않았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절차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시설물 건설에 최소한 2~3년이 걸린다.

정부는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 대형 위탁시설을 지을 수 있는 주변 지역 개발권 보장, 사후 활용방안 등 근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시민단체, 법원의 ‘화해 권고’ 되새겨야

광주지방법원이 잇그제 내린 ‘화해 권고’ 결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과정에서 청사를 부수고 공무원들을 다치게 했으며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판결 대신 양측의 화해를 권고한 것이다.

법원은 광주시가 소송을 취하려는 대신 관련 시민단체와 시위 가담자들은 자연정화활동 및 사회봉사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시위대가 공공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지역사회 갈등의 한 원인이었던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 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2006년 11월 발생한 시위 이후 광주시와 시민단체는 2년 가까이 맞서며 공방을 벌여왔다.

있는 계기를 맞은 것이다. 재판부가 ‘화해 권고’의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폭력시위는 안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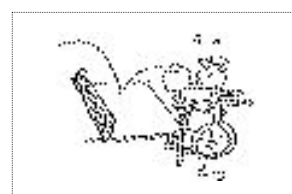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새겨야 한다. 광주시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2억4천만원에 달한다. 사태가 노동자 등 소송 당사자 43명의 재산이 광주시에 의해 가압류됐고 일부는 형사고발된 상태다.

無等鼓

올림픽이 끝난 후 곧바로 열리는 잔치가 또 하나 있다. 바로 ‘패럴림픽’(Paralympic)으로 불리는 장애인올림픽이다.

패럴림픽이라는 단어는 균형 또는 평형을 뜻하는 ‘Parallel’과 올림픽(Olympic)의 합성어라고 국제장애인 올림픽 위원회(IPC)는 밝히고 있다.

패럴림픽



비단 26명을 모아 경기를 가진 것이 시초이다. 제13회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이 6일 개막해 17일까지 계속된다.

한 쪽 다리가 없는 수영선수, 휠체어에 의지한 체그라운드를 누비는 농구선수... 장애를 딛고 혼신을 다하는 출진자들은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또한 하반신 마비를 뜻하는 ‘Paraplegia’와 올림픽(Olympics)의 합성어라는 설도 있다. 이는 1964년 제2회 도쿄 장애인올림픽 이후 공식 용어가 되었다.

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로 종합 7위라는 좋은 성적을 올려 감동은 더했다.

가동으로 치자면 장애인올림픽이 진영국 루트비히 구트만 박사가 2차 세계 대전에서 척수장애를 당한 전역군인들의 재활을 위해 운동 요법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1948년 하지가 마

기고

최현주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앙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교토의정서,巴厘협약 등을 통해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무역규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광주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최다 발생원인 에너지 사용 줄이기 운동과 함께 탄소 흡수원인 숲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1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

지 일일을 생애순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환경개선사업의 시민의 휴식처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금남공원 공원 조성을 계획할 당시에는 이미 구 한국은행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시는 매입의사를 가진 인사를 찾아가 많은 시민이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매입을 포기해 달라고 이해시켜 양해를 받았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색 광주 만들자

개해 오고 있다. 아울러, 도심 곳곳에 5대 공원을 조성하고 방치된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광주의 자랑인 무등산 중심사 지구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녹지를 확충해가고 있다.

더불어, 광주역부터 동성중(7.9km)까지의 폐선부지를 공원화하는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우수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단체와 지역기업, 주민이 참여하여 성공을 거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광역위생매립장 주변(180ha)을 대규모 산소 공급원인 수목원으로 조성하는 사업과 제1하수처리장 부

매도자인 한국은행에는 박광대 시장이 직접 총재를 찾아가 긴밀한 협의 끝에 3,787㎡의 부지를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5년 분할 상환으로 매입하였다.

앞으로도 시는 중단 없는 의지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광주’, 일상생활이 숲속에서 이뤄지는 ‘녹색도시 1등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가을 산행 때 산열매 채취하는 일 없어야

가을 산행 때 산열매 채취하는 일 없어야

가을 산행 때 산열매 채취하는 일 없어야

지난 6월 초순, 사진회원 몇 명이 한라산 철쭉꽃을 촬영하기 위해 어리목 코스로 해서 뒷세오름(해발 1,700m고지)에 올라 잠시 쉬고 있는데, 어느 환경단체 회원들 30여 명이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야호’를 계속해서 합창했다.

장면도 목격했다. 한 번 파괴해 버리면 원상 복귀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슴 속에선 울분이 치솟아 올랐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기11번. 대표전화 2200-551, 222-8111.